



제 89 회

7月 13日,

- … 본회가 주최한 第89…○
- … 회 發明教室이 지난…○
- … 7월 13일 발명장려관…○
- … 연구실에서 개최됐다…○
- … 每月 둘째 토요일 午…○
- … 後 1時 30분에 開催…○
- … 되는 發明教室은 이…○
- … 달에도 1백여명이 參…○
- … 席하여 盛況을 이루…○
- … 었다. 이날 發明教室…○
- … 에서는 서부산업(주)…○

어학실습용 컴퓨터 카세트 발명가

서부산업(주) 윤만희 사장

가장 적은 투자로 가장 효과적인 외국어 교육방법을 개발한 윤만희 사장.

그는 86년 1월 과학기술처의 기술보호를 획득하고 10월에는 한국전자 박람회 상공부장관상 수상, 91년 발명의 날에는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윤만희 사장의 성공사례는 '쑥스러운 말입니다'로 시작됐다.

77년부터 어학실습용 컴퓨터 카세트 생산 설치를 해오던 윤사

장은 자신이 설치해준 어학실습이 학생들의 회화교육에 크게 기여하지 못함을 깨달았다.

1주일에 한시간 정도의 낮은 활용빈도와 어학실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의 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산의 문제 등 세가지가 윤사장이 파악한 내용이었다. 그래서 10배 정도 싼 기자재를 만들어 들고 다니면서 어학교육을 하면 효과적인 외국어 교육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개발한 것이 어학실습용 컴퓨터 카세트.

이 어학실습용 컴퓨터 카세트는 기존 어학실의 기능에서 반복기능, 문장선택, 동시녹음, 속도조절 등 획기적인 기능을

추가하였다.

더군다나 이 컴퓨터 카세트는 들고 다닐 수 있을 만큼 작고 예산도 기존 어학실습용에 비해 10배정도 싸기 때문에 획기적이 발명품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의 적극적인 권유로 1천대 정도를 생산해 놓고보니 수많은 불량품이 발견되었다. 컴퓨터 카세트 1대에 약 2천여개의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산성의 문제와 기능상의 결함이 겹쳤던 것.

어렵게 만든 제품을 모두 폐기하게 된 윤사장은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더군다나 옆친데 덮친

發明教室

成功事例 등 發表

- … 윤만희 사장의 成功…○
- … 事例 發表에 이어 金…○
- … 萬術 本會 상근 이사…○
- … 의 「발명의 창출과…○
- … 사업에 대한 金의와…○
- … 洗戰日 辯理士의 「産…○
- … 業財産權制度」에 대…○
- … 한 金의와 토론이 있…○
- … 었다. 發明家의 成功…○
- … 事例를 간추려 紹介…○
- … 한다. <柳泰朱記>…○



격으로 부도까지 나서 그야말로 윤사장의 신세는 말이 아니었다.

「해서는 안되는 사업을 했던 거죠. 만약 전자에 관해 조금이라도 더 알았다면 결코 시작하지 못했을 겁니다.」

대기업은 여러가지를 연구하지만 자신은 한가지를 전문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졌다는 윤사장은 그 자심감이 엄청난 불행을 초래했다고 한다.

「주머니에 청산가리를 넣고 다닐 정도로 삶에 회의를 느꼈죠. 그렇지만 한번 시작한 일인데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다시 뛰었어요.」

88년 자신의 회사가 법정관리업체로 확정되자 마음 편하게 다시 신제품 개발에 착수할 수 있었다는 윤사장.

폐기했던 제품의 결함을 연구하여 1대에 들어간 2천여개

의 부품을 반으로 줄이는 결과를 얻었고 원가절감과 제품의 소형화를 이루었다.

「하나의 발명이 성공하려면 착상, 연구, 개발, 생산, 판매 등 5가지의 과정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합니다. 어느 한 과정이라도 어긋나면 성공한 발명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실패한 원인도 개발과 생산의 중간 과정에서 생산성과 기능의 문제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능력에 닿지 않는 생산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윤사장은 발명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생산하고 기업화하는데에 힘이 들 때는 과감하게 양도할 줄 아는 발명가만이 진정한 발명가라고 강조한다.

10억 이상의 개발비를 들여 새로 개발한 어학실습용 컴퓨터 카세트의 기능은 완벽했다.

특히 '88올림픽에서 통역 안내원 교육에 사용함으로써 진가를 인정받기도 했고 현재는 외국으로 수출하는 등 그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부도가 난 후 공장에서 쓰러졌을 때 지압하는 사람의 권유로 오동나무 베개를 사용하던 윤사장은 경침, 음이온, 바이오, 스테레오 기능 등 최적의 수면 촉진기인 바이온-단잠이까지 개발하여 천부적인 발명가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윤사장은 쑥스러운 성공사례라고 밝히면서 진짜 성공사례를 발표할 날을 만들어 보겠다고 한다.

현재 어학실습용 컴퓨터 카세트의 수요로 보면 윤사장의 진짜 성공사례는 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